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 용 의



며칠 전, 대학원 수업에서 어느 대학원생한테서 관심을 끄는 책 한 권을 소개받았다. 소래섭 교수가 쓴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라는 책이다. 시선을 끄는 제목에 걸맞게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하다. 소 교수는 이 책에서 '명랑'이라는 말이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1930년대 이후 어떻게 그 의미가 확장되었는가를 분석하며, '명랑'에 투영된 한국 근현대 문화사의 감성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특히 내 관심을 끈 것은 책의 제7장에 등장하는 '모던 걸'의 존재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모던 걸'이란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즉 근대 일본에 등장한 개방적이고 향락적인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이 '모던 보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한국에서도 크게 유행했다. 일본에서는 '모던 보이'를 줄여서 '모보', '모던 걸'을 줄여서 '모가'라 부르기도 했다.

경성의 '모던 걸'은 가지각색이다. 스틱 걸(산책하는 남자를 부축하는 여성), 데파트 걸(백화점 여종업원), 엘리베이터 걸(엘리베이터 안내원), 빌리어드 걸(당

구장의 여종업원) 등. 근대 들어 생겨난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걸'들이 모두 '모던 걸'의 범주에 속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홀싯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감정노동(emotional labor)'에 종사하던 감정 노동자들이다.

경성 '모던 걸'과 서울 '된장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대 사람들이 이들 '모던 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 가 하는 점이다. '모던 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그다지 곱지만은 않았던 듯하다. 근대적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이들 여성은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그 한편으로 신문이나 잡지의 만문(漫文)을 통해 자주 회화되고 조롱받기도 하였다.

경성의 '모던 걸'을 보면서, 얼마 전까지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된장녀'를 떠올렸

다. 어느 친절한 누리꾼의 설명에 의하면, '된장녀'란 '명품만을 좇아다니며 걸뒀어 치중하는 어수룩한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한다.

'모던 걸'이라는 말의 응례에 따라서 '된장녀'를 '포스트 모던 걸'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된장녀' 이외에도, 한국사회에는 '쩍벌녀', '차도녀', '건어물녀', '헬녀' 등, '-녀'로 지칭되는 여성들이 지금도 인터넷 공간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내가 보기에 '모던 걸'과 '된장녀'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모

던 걸'이 되었던 '된장녀'가 되었던, 이들은 모두 '내부의 타자'에 속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타자'란 당대에 통용되는 공동체적 사회 규범이나 가치관에서 이탈한(것으로 보이는) 여성을 의미한다. '모던 걸'이 기존 유교사회의 가정적 가치 규범에서 이탈한 여성이었다면, '된장녀'는 현대사회의 가치 규범에서 이탈한 여성을 비하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둘째 '모던 걸'과 '된장녀' 모두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꿔 말하자면 이들 말에는 은연 중에 남성 중심의 시선이 담겨 있다는 뜻이 된다. 이 점을 두고 선불리 폐

미니즘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모던 걸'과 '된장녀'라는 표현에서 한국사회 남성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느껴진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이 점에 있어서는 '모던 걸'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모던 걸' 탄생에는 당대 남성들의 시선이 크게 작용하였다.

셋째 '모던 걸'과 '된장녀'는 도시문화의 산물이다. 도시 중에서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만들어진다. '모던 걸'과 '된장녀'는 모두 도시에서 태어났으며 도시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당연히 그 활동무대도 도시이다.

'모던 걸'은 경성이라는 도시를 활보했기 때문에 '모던'한 것이지 시골에서라면 결코 '모던'할 수가 없다. '된장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골의 '된장녀'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그 회화적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모던 걸'과 '된장녀'는 모두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사회문화적 격변기에 기성세대 남성들의 시선이 작용한 결과, 공동체 '내부의 타자'로 도시에서 탄생하였다. 마치 경성의 '모던 걸'이 서울의 '된장녀'로 다시 출현한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전남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강 효 인

바쁜 일상에 잠시 머리를 식힐 겸 평소 마음에 맞는 판사님들과 함께 법원 근처의 극장을 찾아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우리나라의 만화영화를 관람하였다.

양계장에 갇혀 있던 암탉 '익씩'이 기지를 발휘하여 양계장을 탈출해 늘 꿈꿔오던 넓은 들판으로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웅장하고 잘생긴 청둥오리 '나그네'는 굶주린 족제비로부터 들판의 청둥오리 무리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단상

의 짝 '뽀얀 오리'와의 사이에 곧 새 생명일 알이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뽀얀 오리'와 '나그네'가 연이어 족제비의 희생양이 된다. 이를 본 '익씩'은 그들이 남기고 간 알을 마치 자신의 알인 것처럼 정성껏 품어준다.

얼마 뒤 마치 '나그네'가 환생한 것처럼 그 알에서 귀여운 새 생명이 태어난다. '익씩'은 청둥오리 새끼에게 '초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초록이'는 '익씩'을 어머니로 알고 따르며 밝게 자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초록이'는 어머니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시작하고, '익씩'과 함께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익씩'이 '초록이'를 생명의 위기에서 구해주자 '초록이'는 '익씩'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그네'의 뒤를 이어 청둥오리

무리를 보호하는 능률한 파수꾼으로 훌륭하게 성장한다('초록이'가 청둥오리들 사이에 그 해의 파수꾼을 선발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예상을 뒤엎고 우승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이다). 추운 겨울이 찾아오자 '초록이'는 파수꾼으로서 청둥오리 무리를 이끌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난다.

따뜻한 '익씩'이 청둥오리 '초록이'를 키우는 것을 보며 '다문화 가정'(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혼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다.

2020년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5분의 1이 다문화가정 출신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초록이'처럼 우리 사회의 능률한 파수꾼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례가 많아지지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법과 제도의 뒷받

기고



이 영 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상 땅을 찾아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급진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상 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상 외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광주시의 경우 지적정보시스템을 통해 올해에만 155명에게 41만4082.2㎡(1085필지)의 토지를 찾아준 바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최초 시작한 1990년에는 접수 민원이 19건(60필지)에 불과했으나 2006년 243건(494필지), 2008년 483건(3095필지),

조상 땅 찾기, 조상 알아가는 계기 됐으면

2010년 423건(3388필지) 등 해마다 민원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 조상 땅을 찾은 사람들도 1996년 9명(40필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950명(8155필지(약 150만㎡))에 달하고 있다. 조상 땅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조상 땅 찾기'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관련 정보나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 부서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본인 및 열람대상자의 상속권자이면 가능하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의 경우는 장사 장속(대습상속, 민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가능한 장자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

망자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토해양부는 물론 시·도 및 시·군·구 지적 업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름으로 조회할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재지 이외의 타 시·도에 있는 토지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한 예로 서울에 살고 있는 민원인이 광주에 소유한 조상 땅을 찾으려면 서울 거주지 관할 가까운 구청에 가서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하면 된다. 또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북구 관할에 본인 조상 소유의 조상 땅을 소유자 이름으로 신청할 경우 북구청 관련 업무 부서에 신청하면 즉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신청을 할 수도 있

광주아트페어 일부 갤러리 조기 철수 등 운영 이슈됐다

얼마 전 폐막한 광주아트페어. 아트페어에 참가한 갤러리의 기고문을 읽고 나서, 아트페어에 유료로 두 차례 관람한 손님의 입장에서 미술을 사랑하는 미술애호가로서 건의사항을 써보고자 마음을 먹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행사는 참 뜻 깊었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었고 미술시장의 흐름을 몸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즐거움을 뒤로한 채 이 행사가 과연 아트페어인지는 의문이 드는 몇 가지 장면을 목격하였다.

첫 번째는 작품을 팔기 위한 행사에서 작품에 가격이 붙어있지 않은 기이한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대부분의 갤러리에서 작품가격을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지도 않았을 뿐더러, 직접 갤러리 관계자에게 가격을 물어보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가격도 주인의 입에서 점차 달라졌다. 정확한 가격이 공개되지 않음은 아트페어의 신뢰와 편의에 큰 흠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공식 아트페어 폐장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오후 두 시 즈음해서 일부 갤러리들이 서둘러 철수한 모습

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분명히 폐장시간과 폐장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일부 갤러리들이 일찍 철수한 것은 손님을 우롱한 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았다.

는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자격이 있는 위임자에게 통보하도록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위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때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부모, 형제,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이제 막 끝났다. 시대가 지나면서 추석도 하나의 휴가처럼 여겨지고 조상에게 그 해의 햇곡식을 바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그 의미가 조금씩 소외되고 있는 듯하다. 고리타분할 수 있겠으나 지금의 우리는 조상으로 인해 존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가 우리가 몰랐던 조상을 알아가고 자신의 뿌리를 되짚어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인의 조상 땅 찾기를 도와주는 공무원들도 조금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토지정보과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 설

갈수록 심각한 도·농 양극화 두고만 볼텐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업인의 신용 불량자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이는 우리 농촌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아닐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3212만1000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809만2000원의 66.8%에 불과했다. 지난 1990년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97.2%(도시근로자 1134만3000원, 농가소득 1102만6000원), 1995년 95.7%(2277만1000원, 2180만3000원)에 이르렀다. 불과 20년 사이에 도·농간 소득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3년여 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농어업인의 신용 불량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8월 기준 농어업인 신용불량자는 2만4665명이었다. 이는 전년도 2만104명에 비해 22.7%나 증가한 것이다. 지금 농촌은 소득은 줄고 빛은 쌓여만

가면서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

농촌의 피해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선 데 덧붙인 격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까지 겹쳐 농촌은 더욱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농촌의 위기를 산업구조 조의 변화나 수입확대와 같은 환경 변화 탓만 할 수 없다. 정부의 농촌 정책 실패와 무관심이 더 큰 원인이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정부는 수많은 농업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농민들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했다. 농촌과 농업에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풍전동화와 같은 운명의 농촌을 살리지 않고선 균형발전이나 선진국 진입이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정부는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게 최우선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F1 '교통대란' 우려, 특단의 대책 세워야

개막 한 달을 앞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걱정이 앞선다. 결승전이 열리는 10월 16일 하룻동안 2만 3000대의 차량과 10만 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처할 교통대책은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이다.

F1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중 수도권 2호선 대체우회도로(무안군 일로읍 청호리~영남 삼호읍 서호리 간 7.2km)와 국도 49호선(해남 화원면~영남 삼호읍 간 17km)을 임시 개통하고, 가변차로와 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해 관람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임시 개통 구간의 홍보대책이 미흡해 관람객들이 기존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데다, 영산강 하구둑을 중심으로 한 가변차로 운영도 경주가 끝난 뒤에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되고 있다.

경주장 내 순환버스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메인스탠드에서

도보로 20분 이상 걸리는 곳에 위치한 P1-P2 등 2개의 공간(5500면)만 일반 관람객에게 제공하고, 결승전이 열리는 날에는 2000면만 개방하되 경기가 끝난 뒤에야 경주장 내 순환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조직위의 이러한 허술한 교통대책으로는 밀려드는 차량과 관람객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해와 같은 교통대란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조직위와 전남도는 지금이라도 임시 개통 구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변차로와 순환버스를 경기 시작 전에 운영하는 등 완벽한 교통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F1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막대한 적자 속에 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 만큼 이번 2회 대회를 보란듯이 성공 개최해야만 정부 지원과 향후 대회 취사진도 고려 낼 수 있는 것이다.

無 等 鼓

전기(電氣) 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 과학자 탈레스다. BC 600년경 호박(琥珀)을 마모에 문지르면 전하를 띠며 가벼운 물체를 잡아당기는 현상을 포착해낸 것이 그 시초다. 전기(electricity)라는 단어도 호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엘렉트론'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이 탄소 필라멘트로 빛을 내는 백열등 전구를 발명했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다. 수만년동안 인류를 가뭄 온 밤의 어둠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인공조명 덕분에 인류는 활동 시간을 더욱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자석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내면서 인류의 삶에 대변화가 생겼다. 덕분에 가전제품이나 각종 산업기계, 자동차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현대문명은 곧 '전기문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전기 없는 세상'을 실감케 하는 사태가 지난주 벌어졌다. 15일 오후 3시부터

5시간동안 일어난 정전대란이다. 가을 폭풍 속에 전력수요가 급증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우려되자 전력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차단시키는 순환정전을 단행한 탓이다. 전국 동시 다발 정전 사태는 사상 처음이었다.

만일 예비전력이 바닥났다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과 설비에 동시에 정전이 발생해 전국이 온통 암흑에 빠지는

블랙아웃



'블랙아웃(blackout)'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수요 예측 실재가 꼽힌다. 전력 공급 실적 부서인 전력거래소와 한전, 전력수급계획을 짜는 지식경제부는 능력 초과와 안이한 대법으로 국가 전력관리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하지만 모두가 일시적인 기억상실(blackout)에 빠진 것처럼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뜨겁다. 정부의 대응체계가 이 모양이니 세간에 웃장 음모론이 판치는 것도 무리는 아닐 성 싶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